

차별에 대한 노인의 경험*

이순희 · 정승은

C S 65 10
2009 5 10
(Colaizzi, 1978)
22 11 5
5 11 > <
: 가 , 가 > <
: 가 , 가 > <
: 가 , > <
가 가 >
가 가
:
:

이순희 국립충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간호학). nhlee@cjnu.ac.kr
정승은 국립충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간호학). sechung@cjnu.ac.kr (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과 과학의 발전은 한국인의 수명 증가를 가져왔으나 출산율의 상대적 감소로 인하여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는 전체 인구의 10%를 넘지 않았던 노인인구가 2026년에는 23.1%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고령 사회(Aged Society)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최인·김영숙·서경현, 2009).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 구조적 상황과 함께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지 못한 채,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옥, 2002). 노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와 뇌졸중이나 치매 등의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존적인 노인층을 양산하게 된다. 또한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가족과 사회생활에서의 소외 및 역할 갈등 역시 의존적 노인문제의 하나이며 노령화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옥, 2003).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해서 부양되었던 노인들이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혼자 남게 되면서,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세대 간 정서적 교류의 단절이나 갈등, 가치규범의 와해 등을 초래하면서 노인개인이나 노인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나 인식, 편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노인을 기피 또는 거부의 대상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위

해를 가하는 등 노인차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원영희, 2005).

노인차별이란, 노인개인이나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고 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부적절한 행위를 가하는 일련의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최원기, 1989). 노인의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 관계나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소외되는 경험과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며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owling, 2005). 이외에도 차별경험은 노인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원영희, 2005).

최근 우리사회도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적지 않은 사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노인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차별의 양상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김옥, 2003). 특히 노인공경을 전통적 사상으로 중요시 했던 우리나라가 노인과 관련된 각종 편견이나 차별문제를 노출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지만 아직도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옥, 2002).

여전히 돌봄의 의존성이 높은 취약 대상인 노인의 존엄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Matiti & Trorey, 2004)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차별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상적 차별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는 개인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것으로 노인들의 대응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의미화를 통해 자기만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이지영, 2009).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노인차별과 관련된 연구는 추상적인 담론 형식의 논의나 양적 연구들이 복지 분야와 간호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김기경, 2009; 김문영, 2000; 남석인, 2008; 박현식, 2008; 원영희, 2005; 이지

영, 2009; Dennis & Thomas, 2007), 우리사회에서 실제 노인이 느끼고 경험한 노인차별을 다각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 차별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보다 심도 있게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현상의 의미를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차별 피해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기술함으로써 이들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와 관련된 노인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차별피해와 관련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노인문제를 제기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노인이 느끼는 차별피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C시와 S시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남, 녀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수는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충분함과 적절함의 원리에 근거하여 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이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30분 이상의 면담을 시행 할 경우 건강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 6명, 남자 4명이었고 연령은 65-70세가 6명, 75세-80세가 4명 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2명, 중졸이 4명, 초등학교 졸업자가 4명 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10명 이고 그 중 1명은 사별 상태였다. 주거는 딸과 같이 사는 경우가 2명, 차남이 1명, 장남과 거주하는 경우가 1명이었으며 6명은 독립 상태로

부부만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은 10명 모두가 없는 상태였다(<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동거상태	직업	경제력	자녀
P1	여자	69세	중졸	기혼	만딸	무	중	2남 3녀
P2	여자	67세	초졸	기혼	차남	무	중	3남 1녀
P3	여자	69세	초졸	기혼	독립	무	중	2남 2녀
P4	여자	68세	중졸	기혼	독립	무	중	3남 1녀
P5	남자	75세	초졸	기혼	장남	무	중	1남 5녀
P6	남자	78세	고졸	기혼	독립	무	하	3남 2녀
P7	남자	76세	초졸	기혼	독립	무	상	2남 1녀
P8	여자	66세	중졸	기혼	독립	무	중	2남
P9	여자	76세	고졸	사별	둘째 딸	무	상	4남 1녀
P10	남자	67세	중졸	기혼	독립	무	중	1남 1녀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노인복지관의 팀장으로부터 자료 수집을 위한 노인들의 면담에 대해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참여 가능한 노인들과 면담 약속을 정하였다.

면담은 노인들이 복지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날짜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시행되었으며 면담장소는 복지관 내 상담실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차를 마시면서 실시되었다. 면담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면담을 하는 동안 상담실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 연구는 비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처음에 참여자에게 “노인이기 때문에 느꼈던 차별피해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개방형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였으며 면담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면담횟수는 한 명당 1-2회로 내용이 포화 될 때까지 시행하였다.

3) 자료 분석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함으로써 회귀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다(Richards & Morse, 2002). 이 연구에서는 콜라지(Colaizzi, 1978)의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이 느끼는 차별피해의 일상적인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녹음된 내용은 연구 보조원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사 저장하였다. 연구자는 필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녹음테이프를 청취하면서 필사된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 사실적으로 옮겨졌는지를 확인하였다. 필사된 내용에서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였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 하였으며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categories) 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주제에 따라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참여자의 차별 피해 경험을 총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차별피해 경험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된 내용을 주제에 따라 기술한 후 그 내용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참여자에게 확인받았다.

4) 윤리적 고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연구자는 자신에 대해 소개한 후 참여자에게 서면화 된 연구 설명서를 제공하여 연구목적 및 취지, 참여 선택권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은 녹음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밀이 보장되고 면담으로 인한 위험이나 해는 없다는 것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실시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익명성 보장을 위해 참여자의 이름과 개인 정보는 삭제될 것이며, 연구 종료 후 결과는 학회지에 출판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또한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진행 중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이 연구에서는 링컨과 구바(Lincoln & Guba, 1985)가 제시한 일관성, 중립성, 사실적 가치 기준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시 연구자간의 상호점검과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으로부터 일관되게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 시작부터 완결될 때까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을 배제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나 애매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전화로 재확인하여 자신의 경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연구 결과

이 연구는 노인이 느끼는 차별피해 경험을 탐색하고자 심층 면담을 적용한 결과, 22개의 구성된 의미에서 11개의 주제와 5개의 본질적인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이 장에서는 <소통부재로 인해 고립감을 느낌>, <부정적 이미지로 거부당함>, <방치되어 두려움을 느낌>, <무시하는 태도로 자존감이 저하됨 >, 그리고 <지나친 통제로 존재감이 약화됨>이라는 주제모음에 따라 참여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표 2>).

<표 2> 차별에 대한 노인의 경험

주제모음	주제	의미구성
소통부재로 고립감을 느낌	의사결정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모임이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제외 됨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시키는 대로 함
	타인과의 교류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외에는 찾는 사람이 없음 ▪하루 종일 혼자 TV만 시청하여 무료함
부정적 이미지로 거부당함	외모가 추하다고 비추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 사람들이 외모를 터부시함 ▪같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함
	일자리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입견 때문에 고용이 안됨 ▪능력이 평가절하 됨
	짐스런 존재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음 ▪돈 쓸 일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됨
방치되어 두려움을 느낌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자녀들이 연락을 하지 않음 ▪아프다고 연락해도 소식이 없음
	가족의 무관심이 지나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기구를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모른척 함 ▪어쩔 수 없이 아파도 참고 지냄
무시하는 태도로 자존감이 저하됨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소리로 야단치듯이 함부로 대함 ▪부정적인 호칭으로 불림
	어린아이 취급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처럼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가졌다고 여김 ▪아이에게 말하듯이 상투적으로 대함
지나친 통제로 존재감이 약화됨	보호가 지나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사건건 간섭받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됨
	행동을 제한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사에 물어보고 행동함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인정받지 못함

1) 소통부재로 인해 고립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가족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소통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도 교류가 줄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적막함이 지나쳐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가. 의사결정에서 제외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경우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여행을 계획할 때에도 미리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이 된 이후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핀잔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손자, 손녀들의 과외시간이나 일정으로 모든 계획이 그들에게 맞추어지다 보니 노인은 자동적으로 의사에 상관없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노인들은 삶의 결정력과 주변 환경,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생활에 영향은 전혀 아니지.. 내가 있어도 그만 아니면도 그만이야.. 내가 좋아하는게 뭐 중요한가. 그냥 애들이 먹고 싶다고 나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난 그냥..” [P1]

“여름에 놀러갈 때도 갑자기 언제 어디 갈거야 하고 통보니.. 미리 얘기나 해주지.. 그것도 다 애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처음에 그래도 따라갔는데.. 이제 잘 안가.. 혼자 집에 있는게 편하고.. 차에 한 옆에 끼줄라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게 싫어. 애들 신경쓰는게.. 그래서 아프다고 설 테니 뉘들이나 갔다 오라고 해.. 실제로 가도 그냥 그래..” [P9]

나. 타인과의 교류가 없음

타인과 대화 시 잘 들리지 않고, 속도가 빨라 이해할 수 없거나 대화 내용이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반복되면서 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보다는 혼자서 TV를 보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쓸쓸하고 고독한 상황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상황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각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연락도 단절되어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타인과 어울리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고 하였다. 분가한 자녀들도 가끔씩 전화통화만 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는 노인들은 무료하고 적적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 할머니가 같이 있어도 할머니가 또 다른 방 쓰고 나도 또 다른 방 쓰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혼자고 나도 혼자고..” [P5]

“애들도 결혼해서 처음에는 전화라도 잘하더니 요즘은 애 때문에 정신들이 없다보니.. 가끔 전화해.. 그냥 지내.. 이제 낙오자가 된 거지 내가 더군다나.. 시간 보낼 데가 없어 그래 혼자 이렇게 외로이 그냥 보내는 거야. 쓸쓸하고..” [P2]

“옛날에 알던 사람은 다 어디 갔는지. 일 안하고 부터는 만날 사람이 없어.. 내가 또 잘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여기 와서도 하루 종일 혼자 있고.. 조금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해준다 그랬어.. 심심해서..” [P10]

2) 부정적 이미지로 거부당함

사람들은 노인들의 구부러진 허리나 옷차림, 건강하지 못한 외관을 추하다고 느끼며 터부시하는 고착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로 인하여 노인들은 사람들로부터 회피당하거나 가족의 짐이 되고 있으며 절실하게 일자리를 원해도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차별을 경험하였다.

가. 외모가 추하다고 비추어짐

노인들은 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신경 쓰여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하여도 사람들은 가까이 서 있거나 접촉하기를 꺼려한

다고 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버스를 타거나 옆에 가면 슬쩍 피하고 길을 물어보기 위해 불러도 모른척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였다. 또한 “나이 먹었으면 집에 있지 구부정한 허리로 왜 돌아 다녀”와 같이 직접적으로 외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나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구부정하고 시원치 않으니까.. 저런 할머니가 왜 나왔어하면서 지들끼리 수근 대고.. 옆으로 비껴서고.. 그럴 땐 서럽지.. 그래도 일은 봐야겠고.” [P4]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가까이 가면 뭐 묻거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내가 피쳐.. 내 자신이 저 사람들이 싫어할 건 아닌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P1]

나. 일자리에서 제외됨

노인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노인을 판단하여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회 박탈로 인해 노인들은 경제적인 고통과 함께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무능력한 노인 이미지에 대한 편견이 노인들로 하여금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런 노인네를 누가 써주겠어요. 늙은 사람들은 일의 능력이 안 오르니까 안 시켜 준다고도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지금 노인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노인들이 다 먹구 놀으니까..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P7]

“일자리 창출한다 해서 노인회서 경찰서에다 원서를 냈어요. 근데 일자리 창출에서 내가 누락이 됐어요. 거기서, 나이가 많다고 솔직히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기한이 지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그래 하도 답답해서.. 여태까진 내가 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P6]

다. 짐스런 존재로 여김

육체적으로 기력이 부족하고 의존적이 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늙은이’로 전락된 것이 처량하다고 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돈 쓸 일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주는 용돈도 마지못해 주는 등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런 짐이 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노인들이 살아 있으면 항상 마음의 짐이 되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상대방한테 괜히 짐이 되고 옆에 있으며 안 된다는 생각이죠.” [P2]

“한 달에 버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다 시피 했는데.. 겨우 애들이 보내주는 돈 30만원으로 밥만 먹지요. 앞으로도 벌벌 못하니까 보내달라고 해야 하지 않나.. 애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P6]

3) 방치되어 두려움을 느낌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나빠진 경우 가족, 친지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등 방치되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노화로 인해 약화된 기능이나 증상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여도 주변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방치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혼자 죽음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세상으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함

가족들과 분가하여 지방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경우 며칠 동안 아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플 경우 병원도 갈 수 없는 막막함을 느꼈으며,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것 같아 두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머뭇거리며 말하기를 꺼려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자식들이 바쁘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다고 자식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혼자 힘든 감정을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자식하고 며느리하고는 완전히 끝났고 나한테 연락도 오덜 안하고 명절 때도 오덜 안하고 작은 자식은 잘하지만 돈이나 보내 오지.. 내가 아프다고 해도.. 다들 바쁘니까..” [P4]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내가 한 일년쯤 간호를 하는데 늙으니까 그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 그래 따로 살면서.. 애들과 따로 살면서 일년을 간호하는데, 성모병원에도 가고 서울대 병원도 가고.. 내가 힘들고 지쳐서.. 몸도 지쳤지만 맘이 아파서, 자식들 다 소용없어.. 지들 사느라고 바빠서..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살았지.. 어 휴..” [P7]

나. 가족의 무관심이 지나침

노인이 되면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된 기능은 신체보조기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청력 저하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대부분의 가족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으로 받아들여 보조기구도 없이 불편한 상태로 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요실금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고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도 치료없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험을 하였다.

“내가 체력이 딸리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잘 안 들려 아주 답답해.. 그래도 그냥 사는 거지 뭐.. 얹혀살면서 내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오래 살을까 봐 그게 걱정이지만 마침 꼭 그냥 눈을 감아야하는 시긴데..” [P3]

“나가기만 하면.. 걷기만 하면 줄줄 새요.. 남한테 냄새 날까봐 나가질 못해.. 어떤 사람은 수술해서 나왔다는데.. 내가 얘기해도 머느리 말이 난 다르데.. 심장이 나빠서 수술도 못한다나.. 병원도 안가고 지가 어떻게 아는지.. 검사라도 받아봤음 좋겠어..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야. 나갈 수 없으니 짜증도 나고..” [P9]

4) 무시하는 태도로 자존감이 저하됨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은 지식수준이 낮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큰소리로 야단치듯이 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함으로써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아이처럼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어린아이 다루듯이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자존감이 저하되며 노인으로서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가.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함

노인들의 경우 크고 높은 소리보다는 낮은 말소리가 더 효과적임에도 참여자들은 큰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호통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호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억양으로 부를 경우 모욕적이며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다.

“내가 말만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마’라면서 끼지도 못하게 해..” [P3]

“내가 안 들려서 그런지 항상 소리를 질러요. 통명스럽게 욕박지르기도 하고.. 그럼 더 못 알아들겠어, 야단맞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지가 잘하는 줄 아니 원..” [P8]

나. 어린아이 취급을 받음

노인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여 어린이에게 대하듯이 대화를 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자녀와 동급으로 대우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편안함과 친근감을

표현한 것일 수 있으나 노인들 스스로는 나이에 맞지 않는 대우로 인해 무시 받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머느리가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깔깔 웃으면서 내가 손자랑 같데요..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똑같이 사줘야 되고.. 아이들이랑 똑같이 해줘야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P9]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아이고 할머니 잘하네.. 어유.. 상 줘야겠네.. 하면서 반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 [P3]

5) 지나친 통제로 존재감이 약화됨

참여자들은 생활이나 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지나친 보호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또한 무관심과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주변의 통제를 경험할 때 존재감이 약화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가. 보호가 지나침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생각하여 매사에 간섭을 받는 경험을 하였다. 혼자서의 외출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가족이 같이 갈 시간이 안 될 경우는 약속을 미루거나 모임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물건을 살 경우도 자녀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노인들의 의사가 무시되다 보니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나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구 하면서.. 또 나도 나중에 원망 들을까봐.. 내가 한 번 넘어지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P2]

나. 활동을 제한받음

참여자들은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나가는 사회 활동도 자유롭게 못하였으며,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니까 집에만 있으라는 인식이 강해 사회활동을 제한하였으며 노인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활동의 제한으로 노인들은 자아 존재감이 약화되는 것을 느끼며,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내가 노인정에서 노인들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해.. 지저분 하데나.. 난 시간보내기도 좋고 어울려 얘기하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시간도 금방 가는데.. 그렇게 못 가게 해. 노인들이 집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 뭐든 왜 그러냐고 꼭 물어보고..” [P4]

“내가 사오면 그런 촌스러운 걸 사왔다구 구박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하니까, 지겨워죽겠어. 그렇다고 사다주는 것두 아니면서..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래” [P1]

4. 논의

이 연구는 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이 느끼는 차별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노인들이 직접 표현하지 못한 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 차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시도되었다.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유의 전통은 최근 그 의미가 약화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인차별을 경험하게 만든다(김옥, 2002). 노인차별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뿐 아니라 지역, 직장, 정부기관, 의료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개인의 능력, 장점, 업적과는 무관하게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Palmore, 1990).

한국노인인권센터(2008)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중 51%가 우리사회에 노인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옥(2003)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노인들의 86.2%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노인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의 경우 참여자 10명 모두 차별 경험을 호소하였으나 특징적인 것은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의식하여 참여자의 태도가 매우 조심스러웠으며, 한탄하듯이 경험을 이야기한 후에도 곧이어 가족을 옹호하는 말로 자녀들의 입장을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자신이 비록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발로라 여겨지며, 지금까지 보수적인 대가족 제도 하에서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과 집안을 위해 헌신해 왔던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강병만, 2003).

이 연구결과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첫 번째 차별 유형으로는 <소통부재로 인해 고립감을 느낌>이었다.

참여자들은 생활 속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감소하면서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단절을 경험하였다.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에도 참여자들은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가족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었다. 가족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도 미리 의견을 묻기 보다는 결정된 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노인들의 알 권리와 자신의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초래되는 차별경험으로 파악된다(강희설, 2004).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생활의 문제와 의사결정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홀대받고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되며, 개인적 관계 뿐 아니라 사회 제도의 안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박현식, 2008).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가족의 관심 대상에서 점점 멀어지며, 타인과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무료함과 삶의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의 소외는 신체적 건강, 사회적 역할의 상실, 고독과 함께 노인의 4대 고통 중 하나로, 원영희(2005)

는 이러한 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적 노력이다. 노화과정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노인 의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배려하며 노인의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상황(김기정, 2009)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로 참여자들이 느끼는 차별 유형으로는 <부정적 이미지로 거부당함>의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주변사람들이 노화로 초래되는 신체적인 외적 변화를 추하다고 인식하여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거나 노인의 외모에 대해 “더럽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식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참여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노화는 평생을 거쳐 일어나는 과정으로 근육이 감소하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신체적 변화의 하나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호의적인 태도는 내적 측면보다는 외적인 모습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문영, 2000).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고용에서도 거부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테니스와 토마스(Dennis & Thomas, 2007)는 그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직장에 대한 차별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노인은 능력이 없고 쇠약하기 때문에 강제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고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노인의 삶을 더욱 위축되고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며, 이는 노인들의 자기 상실감을 초래하게 된다(김문영, 2000).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는 개인별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동력을 잃었다고 간주되는 노인들을 부담으로 여기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적 문제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한동희, 2002). 이 연구에서도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경우 돈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용돈을 주는 것에 인색하였으

며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인들은 자식이나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돈 쓰는 일을 절제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가 차별요인의 주요 요인이며(박현식, 2008), 노인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남석인, 2008). 또한 재정적 여유나 수입의 적절함이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원영희, 2005). 따라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편견 없는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차별 유형으로는 <방치되어 두려움을 느낌>으로 나타났다.

노인 자신은 아픔으로 고통 받고 있을 때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가족들은 노인의 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기능의 약화도 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편하고 삶의 질을 저하하는 변화임에도 주변사람들은 노인이면 누구나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 그대로 방치하였다. 김형수(2000)는 신체적인 쇠약에 따른 건강문제가 노인을 우울하게 할 수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생기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의 응집력이 낮으면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여(Conwell & Duberstein & Caine, 2002), 가족의 무관심과 신체적 쇠약으로 인한 방치 경험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가족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참여자들의 차별 유형은 <무시하는 태도로 자존감이 저하됨>이었다.

무시는 노인이기 때문에 거부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말한다(강희설, 2004). 이 연구에서 무시 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요인은 모욕적인 언어 표현과 어린이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2006)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듯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모욕적인 언행은 차별을 넘어 노인학대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면관계에서의 무시, 표정자체가 주는 치욕, 고통 등은 모든 사회적 약자인 노인만이 경험하는 것으로 다른 노인에게도 숨기고 싶은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이지영, 2009).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언어는 노인의 인격이나 품위를 손상시키게 되며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게 된다(김육, 2002). 노인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예민하므로, 노인에게는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 선택이 요구된다(김기경, 2009).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연구 결과는 <지나친 통제로 존재감이 약화됨>이었다.

이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활동의 참여를 나이로 인해 제약받는 것과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주변인으로부터 저지를 당하는 경험을 말한다(강희설, 2004). 참여자들은 활동 제한이나 주변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하였다. 활동 제한은 일종의 신체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신체의 자유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적 행동을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김기경, 2009). 그러나 노인들은 보호가 지나치거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자유를 구속받고 있었으며, 하는 일마다 잔소리를 듣거나 참견을 받았다.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고양된 존엄성을 갖게 되므로(김기경, 2009), 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은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일 뿐 아니라 존재감을 위협받는 일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노인은 그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 스

스로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므로(최인·김영숙·서경현, 2009), 노인들의 생활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많은 인식과 태도 중에는 상당 부분 편견과 고정 관념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사회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강희설, 2004). 또한 지금까지 노인차별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차이를 배제한 채, 노인 집단의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남석인, 2008).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 방치와 지나친 보호와 같이 상반된 듯한 개념이 차별의 의미로 도출된 것을 볼 때, 노인의 능력과 신체 기능의 변화에 따라 차별의 의미도 다양하고 이에 대한 노인들의 대응과 의미화가 노인 정체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이지영, 2009), 향후 노인차별의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변화의 토대 위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노인차별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파악한 것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차별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방안 뿐 아니라 개인차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제언

이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대상자의 적절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개 지역의 제한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인적 차이를 배제하고 집단으로 노인차별을 논하던 지

금까지와는 달리 개인의 경험을 분석하여 의미화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된 접근을 위해서는 성별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인차별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분화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 차별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별 가해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 강병만. 2003. “노인‘자기’를 찾아서-현대사회의 우리들 노인문제.” 『당대비평』 330-337.
- 강희설. 2004.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들의 경험과 인식.”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경. 2009. “노인의 존엄성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인식과 경험.” 『간호행정학회』 15(1): 81-90.
- 김문영. 2000. “에게이즘(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대한 고찰.” 『정신간호학회지』 9(4): 515-523.
- 김옥.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6): 97-118.
- 김옥.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김형수. 2000.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 10: 24-44.
- 남석인. 2008. “남성 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족기능과 동년배 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 『한국노년학』 28(4): 1297-1315.
- 박현식. 2008. “공공부조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1: 7-26.
- 보건복지가족부. 200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21: 19-339.
- 이지영. 2009.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들의 의미화 방식에 관한 연구: 노인의 자아정체성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원기. 1989. “노인차별감에 대한 고찰: 하위문화론과 현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 · 김영숙 · 서경현. 2009.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5: 33-56.
- 한국노인인권센터. 2008. 『노인인권세미나 연구조사』.
- 한동희. 2002. “한국의 노인차별에 관한 연구-공공영역에서의 노인차별.” 『한국노년학회 추계 학술대회집』 78-93.
- Bowling, A. 2005. *Ageing well: quality of life in old age*.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sees it.” In R. S. Valle &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48-71.
- Conwell, Y., Duberstein, P. R., & E. D. Caine. 2002. “Risk factors for suicide in later life”. *Biological Psychiatry* 52: 193-204.
- Dennis, H., & K. Thomas. 2007. “Ageism in the workplace.” *Generations* 31(1): 84-89.
- Lincoln, Y. S., & E.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titi, M R, & G. Trorey. 2004. “Perceptual adjustment levels: patients

perception of their dignity in the hospital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1: 35-44.

Palmore, E. B.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 Co.

Richards, L. & J. M. Morse. 2002. *Readme first for a user's guide to qualitative methods*. CA: SAGE Publications.

이순희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국립충주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이주노동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2008, 공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2009, 공저),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실무 경험”(2009, 공저) 등이 있다.

정승은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고 충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Methods and Strategies Utilized in Published Qualitative Research**”(2009, 공저),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실무 경험”(2009, 공저) 등의 연구와 『질적연구: 초보자를 위한 길잡이』(2007, 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2010. 4. 7. 접수; 2010. 5. 4. 수정; 2010. 5. 15. 채택]